불교 · 기독 학자, '종교 간 대화' 논하다

레페스포럼, 11~12일 제1회 심포지엄 개최

불교와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물과 기름일 수 밖에 없는가. 같음과 다름 사이에서 상생과 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레페스 포럼은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 성북구 씨튼영성센터에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같고 어디가 다른가: 종교 간 평화를 위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학자 12명이 모여 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1박 2일 시간 동안 미리 준비한 발제문을 발표하고 서로 간의 견해를 이해하고 질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양대 문명의 대화"라면서 "유럽문명의 모체인 기독교가 아시아에 토착화해 가는 과정과 인도를 토양으로 탄생한 불교가 동진하며 다양한 아시아 문화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은 새로운 정신 문명을 창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다면 무한한 기쁨이 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은 서로의 차이를 만드는 딱딱한 외피를 벗어내고 부드러운 공동의 지평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종교의 규제적 기능은 내적 규제가 아닌 외적인 관계를 제약하고 위계질서를 형성에 적용돼 스스로 권력이 됐다"며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종교의 영향력을 새로 변화시키는 일이 모든 종교에 주어진 과제"라고 설명했다.



레페스 포럼은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불교와 기독교, 무엇이 같고 어디가 다른가'를 주제로 씨튼영성센터에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불교 · 기독교 간 같음 · 다름 이해
12명 학자 1박 2일 '끝장토론'
지도자간 의례적 대화는 한계
일반 신도도 대화 교육 필요해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이 같은 동질성에 대한 고찰도 이뤄졌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타자의 깊은 관계를 통찰해 나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 연기적 깨달음의 출발이듯, 가장 높은 자인 예수가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서 태어나는 비움에서 구원의 깨달음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해방신학자인 김근수 가톨릭 해방신학연구소장은 두 종교의 특성을 분석한 뒤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강조하는 불교와 세상을 올바로 바꾸는 투쟁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는 인류에게 아낌없이 사랑받는 종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현재의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종교간 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는 "기독교는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며, 불교는 지혜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라며 "두 종교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둘의 특성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찾는다면 종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창조적 종교대화를 위한 제언을 내놨다. 김 교수는 "일부 종교지도자간의 의례적 대화나 학자들의 학술적 대화는 한계가 있다"며 "종교지도자와 성직자들은 일반 신자에게 열린 대화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다원주의 담론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전통과 교리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종교세계에 대한 영적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교 측에서는 명법 스님(은유와 마음연구소)을 비롯해 김용표(동국대) · 이도흠(한양대) · 송현주(순천향대) · 류제동(성균관대)이, 원불교 측에서는 원영상(원광대) 등이 참여했다.

기독교 측에서는 김승철(일본 난잔대) · 이찬수(서울대) · 김근수(가톨릭해방신학연구소) · 손원영(서울기독대) · 정경일(새길기독교문화원) · 이관표(협성대)가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문화재청 11일… "통일신라 석탑 변화 양상 보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28호로 지정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높이 6.12m의 규모에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된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1980년 이전까지는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되어 있다가 1980년에 남은 부재들을 활용해 복원됐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해 조립했다.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 · 보충하여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최초로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석탑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板築)기법과 달리 잡석(雜石)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됐고, 기단부 적심(積心) 내에서 지진구(地鎭具)가 출토된 점 등이 특이하고 학술적인 의미가 있어 한국석탑에 관한 연구에 실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미탄사(味呑寺)는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돼 있으며, 고려 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門址)도 2차례 이상 중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닌 석탑"이라며 "석탑 제작 추정 시기인 9~10세기에는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흐름과 달리 드물게 규모가 큰 편이라 그 가치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28호로 지정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이어 "보물로 지정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알라야식' 대한 세계 불교학의 시선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국제저널 'IJBTC' 2호 발간

저명학자 기획 논문 수록
다양한 연구 논문도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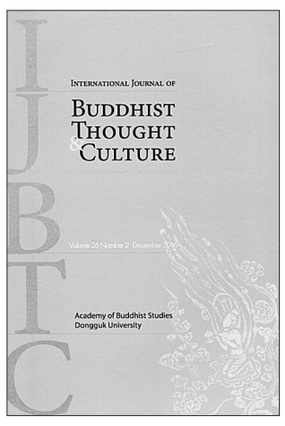
독일, 프랑, 중국 등서 활동 중인 세계 저명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만날 수 있는 불교학 국제저널이 발간됐다.

동국대학교(총장 보광)는 국내 유일 국제 불교학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 혁신판 2호를 최근 발행했다. 지난해 발간 주체가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변경돼 편집체제 등을 개편하고 두 번째 출판이다.

이번 〈IJBTC〉에는 'Exploring Alayavijnana(알라야식 탐구)'를 주제로 한 기획논문 4편과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 4편, 서평 2편 등이 게재됐다.

이번 '알라야식 탐구'를 주제로 한 기획논문은 알라야식에 대한 세계 불교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마르틴 델헤이(함부르크대)는 유가행파의 관념론 철학으로서 알라야식의 작용에 대한 가장 뛰어난 통찰을 보여준 안혜에 대해 논문을 기고했으며, 빈센트 엘싱어(파리고등교육원)는 불교인식론 전통에서 알라야식의 위상을 해명하기 위해 법칭의 관념론 및 전의의 상이한 이해를 개관했다. 스스무 오타케(하나조노대)는 인도불교에서 7종 식설의 전개를 추적했다. 한국의 김성철(금강대)은 원효가 3세6추의 3세를 알라야식으로 간주한 이후 이 설이 후대의 주류적 해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원효의 독창성과 탁월성에 대해 고찰했다.



기획논문 외에도 위대한 사상가 크리슈나무르티와 미륵에 대해 연구한 카렐 워너(런던대)의 연구 불교의 대사회적 태도에 대한 광징(홍콩대)의 연구, 경율론 삼장의 문헌학적 연구동향을 논장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구한 정진일(독일 괴팅겐학술원)의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논문이 수록됐다.

이번 〈IJBTC〉에 대해 불교학술원은 "이번 기획 논문들은 주로 논사들의 알라야식에 대한 이해를 분석해 알라야식 개념 변화를 도출했다"면서 "이번 호의 특집에서는 알라야식에 대한 탐구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통해 마음과 의식에 대한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JBTC〉는 국내 유일의 영문으로 발행되는 불교학 전문학술지로, 인도 · 미국 · 태국 · 대만 · 캐나다 · 노르웨이 · 영국 · 덴마크 · 몽골 등 9개국의 해외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해 연2회(6월, 12월) 발간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韓불교학 연구 현황과 과제는?

세불연, 2월 10일 제1회 월례발표회

장기과제 첫 월례 발표자리
새로운 연구과제 검토 논의

한국불교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오는 2월 10일 만해관 B255에서 '한국 불교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는 '한국 불교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기적인 월례발표회의 첫 발표 자리다.

이날 발표회에는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수료 동광 스님이 '한국 초기불교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최원섭 동국대 외래강사가 '한국 의상화엄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명계환 씨가 '한국 삼국유사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이복희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가 '한국 화엄수행관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김한상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전미옥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강사, 박보람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강의초빙교수, 박서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장정태 삼국유사연구원장,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민태영 동국대 불교융합학과 수료, 김지연 금강대 연구교수가 논평자로 참여한다.

이번 발표회에 대해 세계불교학연구소는 "종래의 불교학의 여러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검토해 불교학 연구의 빈틈을 메꾸고 미래 과제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며 "아울러 우리 불교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신예들의 등용문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17년 불교대학 50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3월 4일(토) 오후 5시 입학식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CD 배송]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대승불교와 밀교 5. 정토경 6.화엄경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차차석교수 박종교수 종석스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정엄스님
2년차	과목	7.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 1) 8 불교문화와 포교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 2) 11. 반야심경 12 유식불교
	교수진	이미령교수 최종석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2017년 1월 2일부터
- 문의 02)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명상학과(위빠사나) [3월 9일(목) 개강] ● 불교다도학과 [3월 7일(화) 개강] ● 불교미술학과 [3월 9일(목) 개강]
● 한글불교의식반 [3월 11일(토) 개강] ● 전통범패의식반 [3월 8일(수)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불기 2561(2017)년

선암사 부설 태고경남전문강원
5기생, 경전 연구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에서 전문강원을 운영중이며
5기생 및 경전 연구반 학인 스님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5기생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과정 \ 학기	1학년	2학년
교 재	초발심,사미율의,치문	서장,도서,선요,절요

경전 연구반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 경전연구반 : 학장스님과 면접 후 결정

과정 \ 학기	1년	2년
교 재	능엄경	금강경

원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종무원 ☎ 전화 055)298-3634 / 팩스 055)298-36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양덕동) 현대오피스빌딩 1201호

태고총림 선암사 부설 경남전문강원 학장 법성 강원장 호명 합장